



오늘의 날씨 | 맑음 | 22℃/34℃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음력 7월 21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1116호



구독신청 02-722-8165

# 교회학교 위기, 가장 큰 책임은 누구? ‘부모’ 54.3%

## 다음세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기독교 교육 나아갈 방향은?”

20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 2연수실에서 ‘통계분석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다음세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다음세대 및 기독교학원위원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식학과 이만식 교수,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가 참여해 발제했다.

이만식 교수(장신대, 사회복식학과)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거 60~70년대의 교회성장 패러다임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 개신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의 종교 통계조사를 인용했다.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개신교는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가 25%, 천주교가 18%인 것에 비해 개신교는 10%에 불과했다.

이어 성직자의 품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개신교의 경우 1984년 64%에서 2014에는 85%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다음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떠나려는 원인이 되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체험하게 되며 결국 이는 향후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의 거시적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원인으로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뽑았다. 그는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한 이중 구조는 담임목사는 성인목회만 담당하고, 교회학교 교육은 교육전도사에게 맡겨버리는 형태”라며 “단지 담임목사가 교회학교 학생 출석수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 다음세대 목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학교는 목회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담임목사가 교회학교 사역을 핵심 사역으로 인식해, 이제 다음세대 목회의 한 복판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식 교수는 교회학교 직분자 754명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위기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교육이 위기라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인가’의 질문(2가지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부모의 책임’이 54.3%로 가장 높았고, 교회학교담당자가 37.3%, 뒤이어 담임목사가 36.9% 순으로 조사됐다. 교회 학교 감소의 모든 원인을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1994~2021년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예측했다. 시계열 분석기법은 과거 통계치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그는 1994년부터 2014년 까지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2021년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예상했다. 이 예측에 의하면 2021년도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수는 339,482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1994년을 기준으로(654,417명) 48.1%가 감소하여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2012년(473,069명) 이후 10년 동안에 28.2%가 감소한 수치다.

다만 그는 “물론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이 더해져 더 빠른 감소를 촉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래 예측이 먹구름 낀 부정적인 미래를 조망하고 있지만, 달리 보면 영향력 있는 변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 한다”면서 “이러한 변인을 기반으로 과거 방식 그대로 교육하는 게 아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으로 미래 예측 결과를 변형시키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는 ‘교회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요인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로 나타났다. 이어 2위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3위 ‘부모의 신앙저하가 문제다’로 부모요인이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3위와 근소한 차이로 ‘학교요인’이 뒤를 이었다.

한편 그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면서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 연계되어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는 신명기 6:4-9절, 엡 3:4절을 빌리며 “성경은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가 분열화되고 학교제도가 발달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심지어 신앙교육마저 주일 아침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적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학교나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탁에 불과하고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의 의미를 말하면서 “교회도 유아세례 받은 아이를 성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해야할 책임이 부모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와 가정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한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아이의 성숙에 있어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연합돼야 하는 게 박상진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교파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부모, 교회, 교회학교, 목회자, 전도사 간 관계에 그대로 전이되는 게 아닌, 서로가 소통과 존중으로 연합해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한다면 다음세대 목회는 암울한 먹구름이 아닌 핑크빛 향기를 내뿜을 수 있다는 말이다. 끝으로 박상진 교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회복돼, 다음세대 목회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본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노형구 기자

# 기독일보

석간



“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18 생명사랑발길걷기 WALK IN(인)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생명의전화 제공

## “동성애 반대 못하는 ‘동성애 독재’에 반대”

### 예장통합 함해노해 제2종교개혁 세미나 고병선 박사와 조영길 변호사 발표

투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였다. 당시 교황청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교황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고 죄 사함을 파는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죄 사함의 근거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닌, 사람의 교황에 두는 것이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투터는 비텐 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외쳤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제2의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형석 박사는 말한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해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다. 20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고형석 박사는 ‘동성애독재’를 불러일으킨 제2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동성애 독재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가치 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안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하려는 현 시류를 빚낸 표현이다. 인권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행태인 셈이다.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는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은 당시 교황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교회법과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는다는 성경법과의 충돌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국가 정치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가톨릭의 교회법은 곧 국가법이었다는 게 그의 전언(傳言)이다. 결국 교황의 ‘자기의’와 예수의 ‘은혜’와의 충돌인 셈이다.

여기서 비롯된 종교개혁은 현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21세기 현재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법

과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프린스턴 신학교, PCUSA 등 미국 장로교 교단도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굴복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17일자 인터뷰 중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반동성애를 위시하여 장신대를 뒤흔드는 세력을 반대한다’는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 네오 맑시즘을 좇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 한 서구 교회처럼, 장신대 또한 동성애를 죄가 아닌 인권으로 치환하여 접근한다면 서방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인권’이라 하는 자기의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며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자기의 인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인권은 거짓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인권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개혁 때 면죄부라는 자기의가 로마가톨릭의 죄악이었다면,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수많은 교단·교파로 분열된 게 바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도바울은 공동체의 분열을 분명 죄라고 하고 있다”면서 “개신교의 교파분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종교 개혁이후로 개신교는 개혁을 명분으로 교파분열을 거듭했고, 심각한 교파 갈등으로 개신교 연합을 도모하던 세계교회협의회(WCCO)도 결국 종교 다원주의를 허용하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러한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의해 침식당할 위기에 처한

현재 교회 상황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전하위복(轉禍爲福)을 설화했다. 이어 그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을 통해 개신교의 고질적 병폐인 교파분열을 치유하고 교회연합을 이루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동성애 독재가 제2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독재와 싸우면서 성령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연합이라는 ‘교회 개혁’을 성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그는 “종교개혁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실천계시에 취약했지만, 제2종교개혁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실천계시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설적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 대부분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며 또한 죄와 세력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언으로 그는 “기독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아울러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건강한자, 아픈 자, 독목한 자, 무식한 자 등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치관 안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피조물 계시, 영의 계시 적극 실천하는 제2의 종교개혁의 삶”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행정부 정책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을 포함시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계획을 지난 8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성경과 복음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단순히 죄라고 비판하던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아이앤스에 조영길 변호사는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국가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가치 하에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를 반대 했을 뿐인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가고, 특정 의견을 표명했을 뿐인데 동성애자를 향해 혐오발언했다고 처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독재이며 전체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는 첫째 나치와 파시즘, 둘째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반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아닌, 동성애에 대한 특정 의견 표명을 막는 것은 바로 동성애 독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대생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추진 세력은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라며 일축했다”고 전하며,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는 말은 ‘혐애는 반드시 민사상처벌을 해야 한다는 독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인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인권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 동성애 독재를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 동성애 독재는 인권이라는 선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독재”라며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동성애 합법화를 구축하려는 핵심 세력이 반드시 존재 한다”며 위장전술을 주장했다.

마무리로 그는 “우리의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안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fact)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ADFD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했는데, 이곳에는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 “아모스 등 선지서는 ‘사회개혁’ 초점 아냐”

## 한국성경신학회 제42차 정기논문발표회 햇불신대 최순진 박사 주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의의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구약성경으로 ‘아모스서’를 인용한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이슈를 염두 해 둘 때, 과연 아모스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책일까. 오히려 최순진 박사(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구약신학)는 “아모스서의 주된 의도가 사회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관계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성경신학회가 20일 오후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아모스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제42차 정기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순진 박사는 “아모스서의 언약신학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아모스서의 중심 이슈는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아모스서가 전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최순진 박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정의의 파괴 현상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을 넘어 그 사회는 우상숭배에 의한 언약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지적하고, “수직적인 언약관계가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다면, 수평적인 사회정의는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회복’으로 사회정의가 복원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과의 수직적 언약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냐”라 설명하고, “선지서의 주제는 사회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깨어진 제1계명의 깨어진 언약관계의 회복”이라며 “모든 죄의 정점은 제1계명으로 향한다. 나머지 죄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도”라 이야기 했다.

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서 선지서 어디에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들에 대한

“사회정의” 그 자체가 주된 의도인 에피소드는 없다고 했다. 그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 등에 대한 사회정의의 구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정의의 구현 자체가 구약성경의 핵심이 아냐”라며 “가난한 자, 과

부, 고아, 이방인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 에피소드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관계, 즉 제1계명의 파괴를 지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 했다.

때문에 최 박사는 다시금 “아모스서의 중심주제는, 제1계명의 준수”라 밝히고, “아모스서의 정의와 의로움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된 우상숭배에 의한 언약파괴를 지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며 “선지서는 사회개혁이 초점이 아니라 신학적 개혁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모스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언약관계의 준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최 박사의 발표 외에도 박준준 박사(합신대 구약신학)와 장재훈 박사(국제신대 구약신학)가 각각 “아모스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아모스서의 종말론 이해: 아모스 9장 11절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성경신학적 고찰”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전 예배에서는 박형용 목사(한국성경신학회 회장)가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눅 24:46~49)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은식 기자



한국성경신학회 제42차 정기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한국성경신학회

## 네팔, 기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반(反)개종법 시행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곳 네팔 교회

8월 15일부터 네팔 정부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반(反)개종법’은 과거 힌두 왕국이었던 네팔에서 기독교 개종을 금하기 위해 작년에 제정했는데, 금년에 들어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네팔에서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기독교인은 전천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제도화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시행된 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한국 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 대표)

고든 콘웰(Gordon-Conwell) 신학교는, 네팔 교회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 있다. 그리고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8월 15일부터 기독교 지도자들이 표적이

되어 체포나 기소될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네팔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에 의하면, 정부의 힌두 세력들이 즉시 수감시킬 기독교 지도자들 명단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VOM과 동역하는 지도자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십년 동안, 이 동역자들은 수천 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사역을 감동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는 힌두 세력의 표적이 될 만합니다.”

네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묻는 질문에 현숙 폴리 대표는 네팔 형제자매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기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법이 시행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폴리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네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들의 안전, 장애,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엢 4:4-6)’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편 네팔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 VOM이 매주 발행하는 ‘하나의 교회로 살기’ 시리즈 네팔 편(https://bit.ly/2MsF0ik)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 한국 VOM 홈페이지(www.vomkorea.kr)를 방문하면 세계 70여개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홍은혜 기자

## 한국생명의전화, ‘생명사랑밤길걷기’WALK IN(人)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생명의전화가 최근 여의도 중학교 대강당에서 생명사랑밤길걷기 WALK IN(人)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명사랑밤길걷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2006년부터 약 220,000명이 참여했다.

희망을 찾아가는(walk in) 사람들(walk 人)이라는 의미를 가진 WALK IN(人) 서포터즈는 참가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페이스메이커, 체험버스 운영, 사진·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할 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자살예방은 어려운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일이 아닌 내 주위 사람을 지키는 일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서포터즈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단체 포포스트를 통해 “당신도 우리와 함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8 생명사랑밤길걷기 운동원 상임실무대회장(동원병원 원장)은 “생명사랑밤길걷기에서 서포터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한 서포터즈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본 캠페인을 통해 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포터즈를 아낌없이 격려했다.

또한 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위원장인 강지원 상임고문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은 이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생명사랑밤길걷기에 참여하는 서포터즈 한명 한명부터 스스로를 사

랑하고 아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은 9월 7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실시하며, 참가자들은 5km, 10km, 36km 3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36km 코스는 하루에 36명씩 자살하는 현실을 반영한 코스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나아가듯이 해질녘부터 동을 때까지 무박 2일간 서울 도심을 걷게 된다.

참가자는 코스에 따라 최대 8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인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접수는 공식 홈페이지(www.walkingovernight.com)를 통해서 받고 있다.

이나래 기자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3인원 모두를 찾아볼**

- 1 월드비전 Family Connect 참여 후원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 이름과 성씨를 입력하여 신원을 비교하거나 이름이 없는 자원을 정보에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3 전 1회 이름연계할당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연락**

- 1 월 30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입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교육, 의료 및 법률에 혜택을 줍니다.
- 2 이름후원은 전 마이키즈 보고서를 넣어 공을 기구하고 한 마리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칠 년 육 개월(사무엘하 1장 1~27절)

조치훈 9단은 어릴 때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가서 일약 세계적인 프로바둑기사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바둑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그 조치훈 9단도 프로기사 신인 시절에 관서 지방의 어느 선배 프로기사와 이벤트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국이 끝난 후 그 선배 프로기사가 조치훈에게 “너는 지금 ‘후수(後手)의 선수(先手)’를 알아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선수’란 지금 두면 상대방이 그 다음 수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도하는 대로 따라 둘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자기에게 이익에 되는 수를 가리키며, ‘후수’는 자기가 착수한 부근에 꼭 따라둘 필요 없이 다른 곳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 수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후수의 선수’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이 되지만, 사실 여기에는 바둑의 고단자 사이에서만 통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이익이 되는 수처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도 아니지만, 판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호수(好手)’가 되는 경우를 두고 ‘후수의 선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치훈 9단은 당시 아직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어 보이는 수만 찾으면서 판을 너무 다급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던 자신에게 그 선배 기사의 조언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본문에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꽃다운 청소년 때부터 황금 같은 청년기 내내 정말 천신만고를 통과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그의 인생이 활짝 퍼지기 시작하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됨으로써, 한갓 베들레헴 촌구석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위란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못 되었습니다.

바로 4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왕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제적으로는 그저 ‘족장’ 수준에 지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조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다윗이 보여 주었던 ‘후수의 선수’ 같은 자세가 과연 어떻게 미래의 복을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의 호수’가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기록하기를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a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스라엘에 전권 공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왕과 왕세자를 한낱한시에 잃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조용히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행동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명백한 표징처럼 보였을 것인데도, 그는 성급한 속단을 내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

위하는 대신 일단 유다 지파로 가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일을 시작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름부음을 받았다 해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더구나 아직 사울 왕가에 다른 왕자들이 여럿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과 반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서, 유다 지파의 교통, 통상 등의 중심지였으므로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 적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즉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기름부음’은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뜻인데, 물론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었지만 그것은 은밀한 의식이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30세로서 골라와 사건 이후 약 10여 년이 경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왜 유독 유다 족속만 선포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 30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재물을 탈취했을 때 그 전리품 중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다윗이 아직도 도망만 다니던 시절이었고 6백 명이나 되는 식솔까지 먹여 살려야 했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동전 한 닢이 아쉬운’ 시절이었는데도 다윗은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는 것을 그때부터 벌써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와서는 다윗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도와주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서,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라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자기네 지파만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전도서 11장 1절에서도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먹을 떡 하나가 아쉬운 시절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마치 그것을 물 위에 던져 버리는 행위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떡이 어떻게 그 사람의 손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것처럼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먼저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떡 하나’ 정도로 유다 족속을 도와주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왕위’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가난하고 약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밖으로 베풀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부와 더 높은 명예의 복을 더 빨리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은밀하게 성도를 구제하고 교회의 선한 사업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나 기복주의 교인에게는 ‘떡을 물 위에 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만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을 깨닫고, 어려울 때에도 먼저 남을 돕고 밖으로 베푸는 선행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성도에 대한 신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장래 받을 복의 확고한 보장이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에 “4b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배부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공무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베스 족속은 이전에 그들이 사울 덕분에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블레셋 적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에 걸려 있던 사울의 시체를 야간행군을 감행하여 되찾아 와서 후히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 사울 왕을 장사지내 준 것 때문에 이제 와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그토록 마음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기네에게 어떻게 나을 것인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자기네들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죽여 버릴 것이라고 뚝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그들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이다.’라고 오히려 크게 칭찬했습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으며, 다윗은 그 사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자기의 주’ 즉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었던 주군으로서 존중하고 이처럼 은혜를

갚은 일을 두고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반대나 반항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충성스러운 신민의 자세라고 극찬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있는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 서도 “은혜와 진리”로 그들에게 배부시기를 바라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진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너희들이 사울 왕에 대하여 것처럼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덧붙여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와 행보를 같이 하여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고 도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는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여전히 통일 왕국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르앗 족속에게 그들이 사울에 대하여 신의를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를 그렇게 대해 주는 다윗 왕을 보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오직 다윗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전심으로 받들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족속을 그들의 신의를 존중해 주는 자세 하나만으로 당장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장차 유다 족속의 왕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초석을 또 하나 든든히 닦았던 것이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도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차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공의’란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공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의로움을 지키는 것, 즉 ‘신의’를 뜻합니다.

부자가 자기 대신 사람을 죽여 줄 청부살인업자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대신 죽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가 있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된 친구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의 흠여머니를 마지막 으로 만나게 해 주기 위해서 만약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주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강과 세계에서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같은 파க்க리의 의리를 지키는 데에 목숨을 내걸고 동료였다가 그 의리를 배반하는 자를 원수보다도 훨씬 더 미워합니다.

그런 불법적 조직조차 그렇게 의리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는 성도 사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신자로서의 신의를 두텁게 쌓아 가는 교회 - 이런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단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가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신자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 곧 ‘신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능력은 있어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교인은 결국 교회의 시험거리로 때로는 배신자까지도 될 수 있지만, 능력은 부족해도 신의가 있는 교인은 그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미리 보장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 결국 최상의 복을 받게 해 줍니다.

8절 이하 11절에 “8사울의 군사령관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예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하게 살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는 일종의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에 이은 무신정치(武臣政治)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왕권의 공백기를 틈타서 그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전 이스라엘 지파의 실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집권을 시작할 지 이미 오 년이나 지난 후에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낸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왕위를 잃고 죽은 직후에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그 첫 5년 반 동안의 기

간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군사독재자로 군림하던 아브넬은 여론에 밀려 아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권력에 무언가 정통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아브넬은 마지못해 이스보셋을 형식적으로나마 왕으로 옹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두 해 동안에도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아브넬이 일종의 섭정처럼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7년 6개월 내내 헤브론에서 유다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열두 지파 전체의 왕권을 약속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절대 다수의 지파들이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자기가 따랐던 자리에 머물러 두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대신 그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그 말씀대로만 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기록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 점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 상승, 각 지파 장로들의 전적인 후원,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적 세력의 약화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섭리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절로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고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섰더라면 통일왕국의 전권을 얻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도로 빼앗길 위험도 다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그저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기다리지만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아서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동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실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때 그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배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를 직접 응급처치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한 그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는 것조차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는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

문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부상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더욱 위급하게 만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저 엠블런스가 와서 응급구조대원이 전문적인 기술로써 그 부상자를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 당시에 자기네들을 급히 추격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고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금만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써 일을 망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최고최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고 실제로 체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사에 급한 성격은 무슨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overnight millionaire’입니다.

즉 미국의 백만장자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하룻밤은 걸려야’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그대로 ‘벼락’ 한 방 맞는 짧은 순간’에 대박을 터뜨리는 극단적 초스피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은 그런 벼락부자가 생기기도 힘들고 하루아침에 졸짜 땅하는 거지가 되기도 힘든 사회로서, 그저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 다들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만족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하든지 ‘한탕주의’ 일색입니다. 땅 투기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가게를 맡아먹든지 간에, 하여튼 단시일 내에 때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실로 ‘고진갑래’란 말은 그저 사자성어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버릇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바로 ‘기복신앙(祈福信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거나 하면 즉시 뭔가 크게 한 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복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처럼 보이고, 막연하게만 여겨질지라도 장래의 더 크고 확실한 복을 위한 영적 호수(好手)를 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아니 가난할 때에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아직 미약할 때부터 여찌하든지 교회 밖으로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부터 신앙의 형제자매들이나 동역자들과의 의리를 지키으로써, 미래의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제물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보혈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최고최대최상의 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제의 ‘도광자’가 오늘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며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 전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같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전능자께서 그 여호와이레로써 점점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나중의 복’을 이 경향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 기고

‘소는 누가 키우나?’ 한 때 이런 말이 유행어였다. 어떤 조직이든 더 안내고 묵묵히 ㅁ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세가 어느 정도되는 소위 1%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급이면 스타성 기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각자 줄 세우기도 하고 특별 관리도 한다. 자신의 홍보나 일간 신문사의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 사진 찍고 인터뷰 하는 일과 광고로 도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대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 언론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

정책을 가지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누가 반대하랴.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언론스타가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다들 밥 먹고 사진 찍고 스타만 되려한다면... 주인공만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가 없다. 엑스트라의 감칠연기가 있어야 제 맛이다. 한국교회도 너무 똑똑한 주인공들만 있으면 인간미가 없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허술해도 사람 냄새가 조연이 그래도 나는 좋게 여겨진다.

농촌의 농부들이 늙어가고 은퇴하고 있다. 과수원 과일은 누가 따냐? 배추농사는? 논밭일은 누가하냐? 양어장 고기는 누가 키우냐?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잡냐? 소는 누가 키우냐? 8월의 가마솥 찜통 더위에 정말 땀을 흘린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아

무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때, 사진 찍고, 밥먹고, 차 마시고 친목회하다 끝 든타입은 지나고 몇 년 후 은퇴를 한다면, 이렇게 ‘소’키우는 일에 별 관심없다면 ‘소’와 ‘양’은 주님이 알아서 다 키운다는 것인가?

조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없이 이벤트로 시간만 때우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과, 반대로 실제로 일을 하는데 차마 민망스러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그리 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다. 조직에 꼭 필요한 인제는 후자이다. 그들이 없으면 조직은 결국 쇠퇴하고 망하는 길은 걷게 된다. 고로 지도자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지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바보 만들기는 쉽다. 자신보다 앞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이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본인들이 ‘일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삼류’같으면서 말이다. 좋은 지도자나 일

꾼이 나와도 자신의 맘에 안든다면 바로 비토세력이 된다. 비토(veto)는 거부권이 라는 단어로 복음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용어이다. 이런 비토세력이 멸절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실족하게 만든다.

지도자의 한계가 있다면 상대가 나와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소위 ‘개척파’보다는 ‘일류파’라는 의식은 해외와 출신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점은 더 강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하여는 무관심과 무지하다. 자신들이 처놓은 덫과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한국교회를 섬기며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등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목회생태계를 회복하려고 앞장서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죄목(?)으로 뒷담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인재를 비토시킨다.

지난해 일본 여행중 소학교 운동회에서 박 터트리기 경기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같은데 오자미를 던져서 박을 터트리면 “내가 던져서 저 박이 터

졌다”고 좋아한다. 그런데 일본식 경기는 박을 바꾸니로 만들어 그 박안에 오자미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내 것도 저 박안에 들어가 그 박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감동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닮으면서도 깊이와 감동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관점과 감정이 전혀 다르다. 박을 꼭 터트려야 속이 후련하고 직정이 풀리는 것인가?

‘한국교회’라는 조직에 좋은 지도자 나오기가 쉽지 않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최소 10년 아니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도자로 만들기 어렵다.

앞으로 교회와 역사와 미래를 읽는 지도자의 필수조건은 ‘연합할 줄 아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많다. 그런데도 다들 개인기에 능해서인지 ‘연합’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들다. 그래도 가끔은 ‘연합’하기도 한다. 개인기 박을 터트리면 “내가 던져서 저 박이 터

워크가 되는 자만이 미래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동력이다.

한국교회는 정치행위로서의 교회 연합은 있었지만 구체성을 띤 아젠다 설정에는 후진성을 보여 왔다.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는 누가 키우나?’ 요즘 필자는 그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발전에 기여할 일들을 차분히 챙기는 일들은 누구의 몫인가? 한국교회 100년이 멀다만 향후 50년, 1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실천할 브레인 이 있기는 한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10년 20년을 이상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온 실무자들이 여럿 있다.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건 그들이 한국 교회의 유무형의 자산이다. 그들의 열정과 사심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일화하는 마이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겸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글: 김아름스튜디오 | 그림: 박미영 | 발행처: (주)아이리브 | 2014년 10월 10일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젓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효상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02-758-7580